

통신시장 개방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우리협회는 지난 1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면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W사업자와 SI사업자는 50%이상이 시장잠식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편집자주 -

51개 회원사가 응답

우리협회가 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금성정보통신, 기린시스템 등 135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VAN, DB, S/W, H/W, SI사업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했으며 각각 36개, 25개, 28개, 19개, 27개 업체가 부문별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각 질문의 복수응답은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를 기준으로 통계처리했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통신시장 개방

장·단기적으로 통신시장 개방은 정보통신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된다. 조사결과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상(51.1%)이,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47.4% 부정적일 것이라고 나타났다. 반면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30.3%에 불과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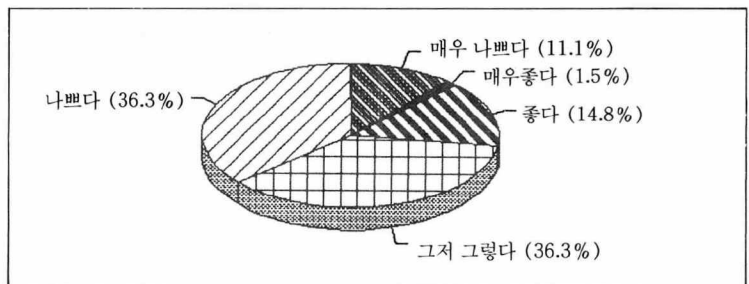
통신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시장 활성화로 인한 매출증대(29.6%), 상호협

력을 통한 자본 및 기술력 확보 기회증대(28.1%),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확장 기회 증대(25.2%)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2] 참조)

시장개방으로 국내업체 대리점화

VAN 사업자들은 통신시장 개방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22.2%)보다 부정적인 영향(41.6%)이 더 많이 나타

[그림 1]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단기적 영향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시장잠식(75%)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경쟁과열로 인한 인력이탈(13.9%), 기존 상호관계가 경쟁관계로의 전환 가능성 증대(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잠식이 매우 우려되는 분야는 [그림 3] 처럼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 부문(27.8%)과 DB 부문(27.8%)이다. 이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55.8%)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25%)가 시급하게 요구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환경의 조성(50%)과 더불어 회선사용료(25%), 요금제도(22.2%)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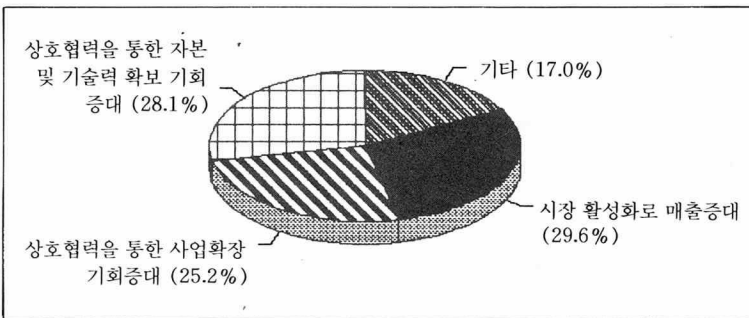
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36.1%)과 부정적인 영향(38.9%)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이유로는 상호협력은 통한 사업확장 기회의 증대(36.1%), 시장 활성화로 인한 매출증대(33.3%), 합작을 통한 자본 및 기술력 확보 기회확대(27.8%)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규사업 또는 확장코자 하는 분야는 국제 VAN서비스(36.1%), 무선데이터통신(30.6%),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27.8%) 순이며 외국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는 SI(36.1%), EDI(27.8%)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는 합작으로 인한 기술력 확보와 상호협력으로 인한 사업확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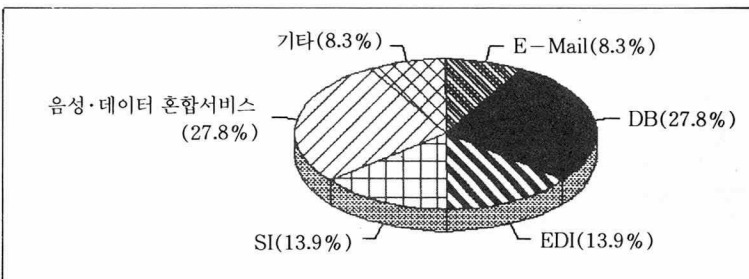
또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형태는 네트워크 직접구축을 통한 시스템 서비스(38.9%)보다 국내의 데이터망을 통한 독자적인 시스템 서비스(5.8%)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의 대리점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한 36개의 VAN 사업체는 DB 관련업체가 9개사, S/W 및 통신기기(H/W 포함) 관련업체가 각각 7개사, EDI 관련업체가 4개사, E-mail 및 SI 관련업체가 3개사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그림 2] 통신시장 개방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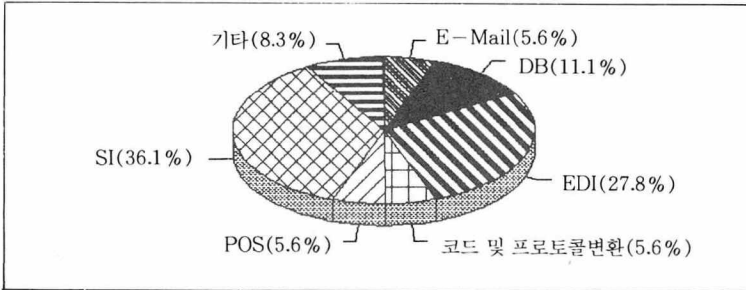
[그림 3] VAN 시장잠식 예상분야



시장형성 미흡으로 과반수 관망

DB사업자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VAN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단기적인

[그림 4] VAN사업자의 외국기업과 상호협력 희망분야



영향을 묻는 질문에 56%(단기), 40%(장기)가 정확하게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국내 DB산업이 다른 정보통신산업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 16%에 불과하던 응답업체의 긍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32%로 증가한 것도 두드러지게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단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64%)를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확장 기회증대(20%), 협작을 통한 자본 및 기술력확보 기회확

대(16%) 등을 지적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장·단기 모두 28%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유로는 시장잠식(76%)이 압도적이다. 또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DB 제작 및 IP의 역할을 하는 정보제공업체와 DB서비스 및 분배를 하는 정보유통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공 DB구축지원(36%), 정부보유 정보공개(16%), 선개발비 지급을 통한 개발(16%) 등을 응답해 공신력 있는 양질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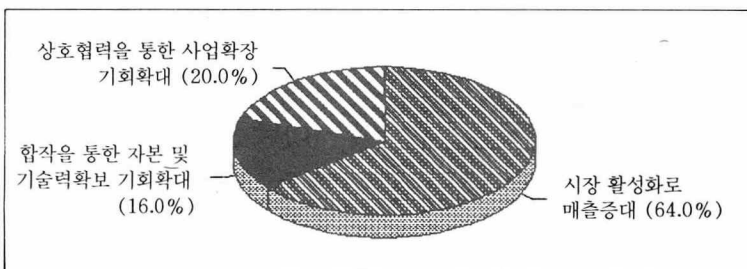
공급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개선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DB 부문에 응답한 25개 업체는 정보유통업(DB 서비스, 분배업)이 18개사, 정보제공업(IP, DB 제작)이 7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S/W가 가장 큰 타격

통신시장 개방은 S/W시장에도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응답업체의 50%가 단기적으로, 46.4%가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주된 요인으로는 시장잠식(50%)이 두드러지고 경쟁과열로 인한 인력이탈(25%)도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잠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통신용 S/W(42.9%)가 단연 돋보이고 S/W개발관리 S/W(17.9%), 산업응용 S/W(14.3%)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시스템 S/W가 1, 2순위를 차지(60.8%)하고 있어 응용 S/W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7] 참조)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할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기술인력

[그림 5] DB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



양성(46.4%)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개발비 산정기준 적용 제도화(17.9%), 세계 및 자금지원 확대(10.7%), S/W 인증제도(10.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반면 단기적으로는 10.7%가, 장기적으로는 25%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확장기회 증대(28.6%)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S/W부문에 응답한 28개 업체는 응용 S/W 개발판매 14개사, 시스템 S/W 개발판매 7개사, 시스템 운영수탁 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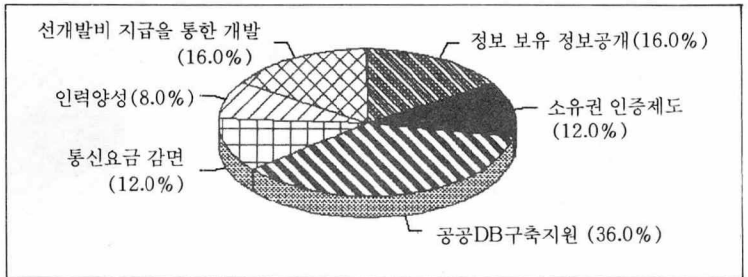
시장이 위협받을 통신기기 분야

H/W시장에서도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52.7%가, 장기적으로는 42.2%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21.1%(단기적), 31.6%(장기적) 정도만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이유는 시장 잠식(57.9%)이며 경쟁과열로 인한 인력이탈(31.6%)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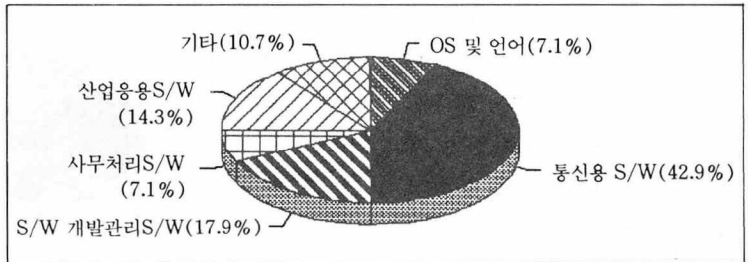
이는 국제경쟁력의 미약과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장잠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통신기기가 압도적으로 높게(78.9%) 나타났는데, 응답업체중 통신기기인 업체가 47.4

%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참조)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연구개발 자금지원 강화(47.4%)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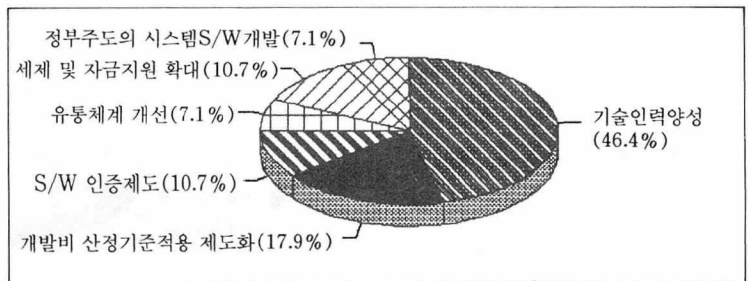
[그림 6] DB산업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강화 방안



[그림 7] S/W산업의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잠식 예상분야



[그림 8]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S/W산업에 가장 시급한 사항



유도(36.8%)가 지적돼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그림 10] 참조)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좋은 영향으로는 합작을 통한 자본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 확대(52.6%) 등이 지적됐다.

H/W부문에 응답한 19개 업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통신기기 9개사, 소형컴퓨터 4개사, 통신용 단말기 3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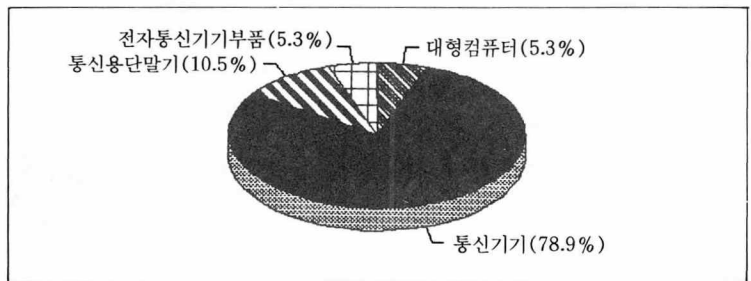
시스템 분석 등 주사업 시장잠식 우려

통신시장 개방의 장·단기적 전망에 대해 SI사업자들은 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66.7%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11.1%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시각은 55.5%, 긍정적 시각은 25.9% 등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51.9%)는 시장잠식으로 인해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SI분야는 최근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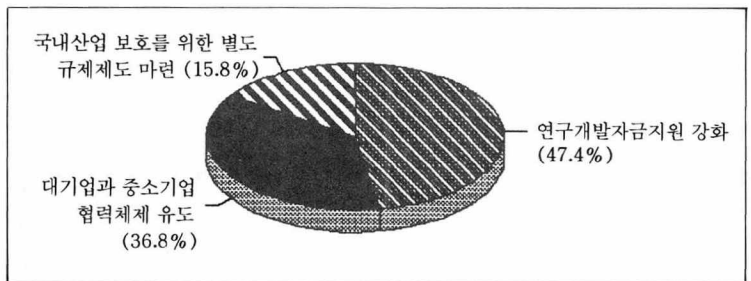
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시장잠식의 주요대상분야인 시스템 분석 및 설계(37%)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14.8%) 분야를 응답업체의 63%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압박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그림 11] 참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기술인력양성지원(63%)가, 기술 및 정보교류채널 확보(33.3%) 등이 지적돼 전문인력의 수급과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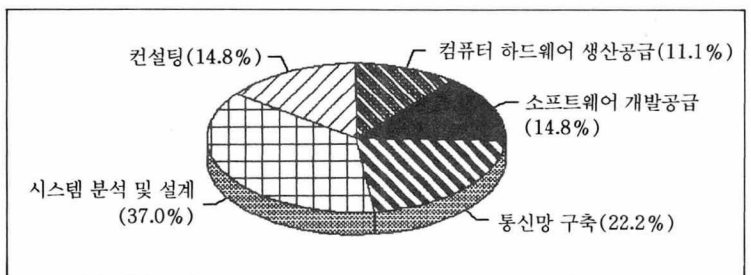
[그림 9] H/W산업의 시장잠식 예상분야



[그림 10] H/W산업에서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



[그림 11] SI분야의 시장잠식 예상분야



초·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2] 참조)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자본 및 기술력 확보 기회의 확대(33%),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확장 기회의 증대(26%) 등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I부문에 응답한 27개 업체의 주요사업별 구성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9개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8개사,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공급 4개사, 통신망 구축 3개사 등이다.

전문기술인력, 제도적 뒷받침 시급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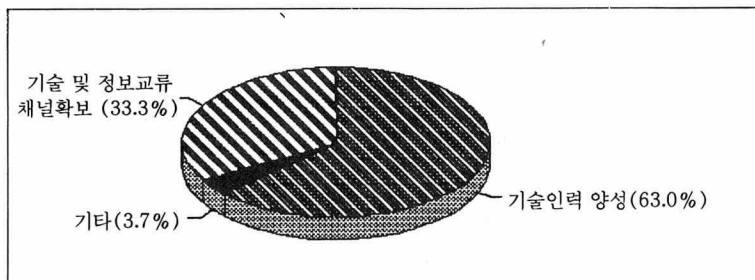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

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응답자는 최근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시장이 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라 잠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S/W사업자와 SI사업자는 응답자의 50% 정도가 장단기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신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시장 활성화로 인한 매출증대와 합작을 통한 자본과 기술력의 확보, 그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확장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자들도 나타났다. 이에 각 사업별로 차이가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기술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2] SI분야에서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



협회 간행물 판매

협회에서는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총판 : 도서출판 진한도서 (전화 : 319-3535)
- 간행물 목록
 -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 (6,000원/권)
 - 94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업무편람 (20,000원/권)
 -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6,000원/권)
 -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